韓國心理學會誌 : 産業 및 組織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990. Vol. 3, NO. 1. 98−121

한국인의 투표성향과 지역감정에 대한 조사연구

—87' 대통령 선거 성향 분석—

최 홍 국

(호남대학)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역감정을 살펴본 결과 호남사람들이 가장 강한 편견에 휩싸여 있었다.

영·호남간의 지역감정은 서로 구조를 달리하고 있었는데 영남사람들은 호남사람에 대해 '믿을 수 없다''자기 지역만 생각한다'와 같은 어려서 부터 학습된 도덕성과 관련있는 상징적 지역감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호남사람들은 영남사람들에 대해 상징적 지역감정외에 영남인들에의 금력이나 승진등 혜택집중 지각과 같은 현실적 지역감정을 주로해서 지역감정이 형성되어 있다.

지역감정은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상징적 지역감정과 현실적 지역감정 모두 투표행동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투표성향 분석에 있어서 '군정종식'과 같은 대중적 이슈는 선거에서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고 각 후보의 이미지와 기대감이 각 후보의 득표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미지 중에서는 '친밀감'이, 기대감 중에서는 '사회안정'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후보의 경쟁관계에 있어서는 노태우 후보는 김대중 후보, 김영삼 후보와 모두 경쟁관계에 있었으나 김영삼 후보의 경우는 김대중 후보가 주 경쟁대상(혹은 장애요인)이 되었으며 김대중 후보 경우에도 김영삼 후보가 주 경쟁대상이 되었다. 이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못했기 때문에 표가 분산되었다는 경험적 증거가 되고 있다.

지역간 감정의 존재를 염려하는 많은 목소리는 지역감정타파라는 단일한 표현에서 부터 근자에는 전라도 사람들의 지역감정과 경상도 사람들의 지역감정을 구별하여 무언가 서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려 노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호남지역의 지역감정은 표현부터 '피해의식' 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옛부터 받아온 정치적 압박이 하나의 ethonocentrism(지역중심별 사고)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경상도 지역 사람들의 지역감정과 전라도 지역 사람들의 지역감정들이 어떻다라는 것이 논자에 따라서 추측에 의존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지역 사람들의 지역감정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주된 목적의 하나로 다루고자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백인들의 흑인에 대한 편견들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현실적 집단 갈등이론 (realstic group cenflict theory)과 편견의 사회문화적 이론인 상징이론 (symbolic racism)의 두 접근방법으로 나누어 분석한 미국의 예가 좋은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Kinder and Sears, 1981).

현실적 갈등이론이란 흑인들이 백인들의 실생활에 가하는 현실적인 위협을 의미하며 상징이론이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장하면서 획득되는 추상적이며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을 의미한다.

지역감정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첫째로 가정할 수 있는것은 타 지역 때문에 특정지역이 받는 현실적인 피해이다. 이는 본인 혹은 소속집단 혹은 소속지역이 받는 정신적, 물질적인, 상대적 혹은 절대적 피해를 포함한다.

호남지역에서 형성된 영남 출신 대통령에 의해 생긴 상대적인 승진기회 박탈이나 타지역에 비해서 늦은 발달이 이에 속할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심리적으로 이해하면, 자기 지역의 발달이 타 지역의 개발 때문에 지체되면 예산 할당을 위한 경쟁심을 유발하고 경쟁심은 타지역을 하나의 위협 (threat)으로 지각하게하며 이러한 위협은 적개심 (hostality)을 파생할 것이다. 여기서 파생된 적개심은 하나의 지역중심사고로 발달되고 이것이 지역감정을 형성했을 것이다. 여기서 형성되는 사회적인 태도는 본질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과 관계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변인으로

1) 싫어하는 타 지역민이 상관이나 감독자로 올 경우
2) 싫어하는 타 지역민이 대통령이 될경우 본인에 대한 손해
3) 싫어하는 타 지역민이 대통령이 될경우 본인 지역에 대한 손해
4) 싫어하는 타 지역민이 이웃집에 이사 올경우
5) 경상도 지역의 금력, 각종 혜택 집중지각

의 5가지로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현실적 집단갈등 가정은 사회심리학에서의 기대-가치이론(expectancy value theory)을 근저로 하고 있다. 즉 위협에 대한 지각의 정도는 특정 대상에 대한 적개심의 정도 즉 지역감정의 강도를 결정할 것이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이 편견의 강도를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연구는 세가지를 들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경험적인 뒷받침은 그다지 강하지 못하다.

첫번째는 미국 남부지역 백인들의 편견은 부근의 흑인수에 상관있거나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흑인 수와 상관관계가 있다(Blalock, 1967). 두번째는 집단 상동형 (group stereotype)

의 변화에 대한 시계열 (time-series)관찰 즉 일본의 진주만 공격에 대한 미국인의 태도변화이다(Ashmore, 1970).

세번째는 Sherif(1961)등에 의한 현장 실험으로 하계 camp내에서의 국민학교 학생내에서의 상호 의존 관계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이다. 위의 세가지 연구 모두는 상당히 간접적이고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현장 실험은 일반화에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제약점은 부분적으로 갖고 있을것이다.

지역감정 문제에 있어서 두번째로 가정할 수 있는 것은 사회문화적 학습에 의해 형성되는 태도이다. 즉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많은 가치와 태도들을 형성하여 간다.

동조 (Conformity)에 대한 강요에 의해 어린시절에 형성된 태도는 더욱 고착되고 이는 후에 성인이 된 다음의 태도 변화에 강한 저항요소가 된다. 현실적 위협은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편견의 핵심적 요인들은 남아있게 된다. 물론 편견이 어린시절에 획득 된다는데에는 다른 견해가 있기도 하다 (Middleton, 1976).

Kinder와 Sears (1981)의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서 Symbolic Racism을 들고 있다. 이들은 Symbolic Racism을 흑인들이 미국의 전통적인 Protestant Ethic — 개인주의, 직장윤리, 복종 등 — 을 깨려한다는 도덕적 감각에 기본을 둔 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흑인들은 게으르다''일을 하기 싫어한다' 혹은 '정부가 흑인들을 지나치게 감싼다' 와 같은 내용들이 상징적 인종차별에 속한게 된다.

즉 상징적 인종차별이란 사회적 도덕이나 예의와 같은 것에 기초를 둔 편견들로서 현실적 위협과 관계없는 어려서 부터 학습된 편견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징적 인종차별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도입하면

'서울사람은 이기적이다'

'전라도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와 같은 요인들이 상징적 편견의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각 지역민에 대한 차이지각 연구 (김진국, 1987) 등에 의한 각 지역민의 특성을 나열한 다음 이 들을 다시 요인 분석하며 상징적 편견들로

'믿을 수 없다'

'이기적이다'

'편견이 강하다'

'잘난체 한다'

'단결력이 강하다'

와 같은 요인들을 얻어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편견들을 '상징적 지역감정' 이라 하겠다.

이같은 분류는 Kinder 와 Sears (1981)의 realistic group conflict와 symbolic racism의 두 분류법과 일치하질 않는다.

Kinder와 Sears는 '나'와 '우리'혹은 '우리지역'을 분류하여 '나'의 이해에 관한것 외에는 모두 상징적 편견범주에 넣고 있으나 '우리'라는 개념에 강한 우리나라의 실정에는 타당치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나 위협에 관한 것이면 모두 현실적 지역감정의 범주에 넣었고 기타 도덕적인 면이 유래된 것은 상징적 지역감정의 범주로 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목적의 하나는 지역감정을 현실적인 위협이나 이해관계에 관련된 현실적 지역감정과 사회문화적 견지에서 어린시절부터 학습되어진 도덕이나 예의에 관련된 상징적 지역감정의 두가지로 지역감정을 나누고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검증하는데 있다.

아울러서 영남과 호남의 지역감정의 구조가 영남의 경우는 상징적 지역감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호남의 경우는 현실적 지역감정을 중심으로 지역감정이 형성되어 있을것 이라는 가정하에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은 1987년 11월 26일 현재 만 20세 이상의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선거 20일전과 선거 20일후의 두번에 걸쳐서 조사되었다. 표본지역은 선거전과 선거후의 조사 모두 일치 하도록 노력하였다.

2. 측정

가) 현실적 지역감정 : 본인이나 본인지역에 대한 위협이나 이해관계에 관한 편견들로서

(가) 특정인 당선과 본인의 이해관계

(나) 특정인 당선과 본인 지역과의 이해관계

(다) 공직 지역 할당

(라) 타 지역민 상급자 진출 위협

(마) 특정지역 금력, 특혜 집중지각

(바) 타 지역민의 이웃집 아사에 대한 호오경향 등을 중심으로 설문서를 구성하였다(부록참조).

나) 상징적 지역감정 : 상징적 지역감정의 측정은 기존의 연구물을 참조하여

(가) 이기적이다

(나) 믿을 수 없다

(다) 잘난체한다

(라) 편견이 강하다

(마) 단결력이 강하다 등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다) 대통령 선거 결과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8명의 후보가 입후보 했으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후보의 3파전이 되었으며 선거 결과 득표율은 노태우 35.9%, 김영삼 27.5%, 김대중 26,5%이었다.

영남의 경우 득표율은 노태우 49%, 김영삼 42%, 김대중 5%

호남의 경우 득표율은 노태우 9.6%, 김영삼 1%, 김대중 86% 였다.

영호남의 득표율을 지역출신별로 보면 영남에서는 91%를 출신지역 사람에게 호남에서는 86%를 출신지역 사람에게 투표하였다.

앞서 지역감정의 본질에 대해 논하였으나 이 논문의 주 목적은 지역감정을 하나의 정치적 역동체 (political force)로서 다루어 보는 것이다. 즉 이번 12월 16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감정이 투표행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1971년부터 보인 지역감정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역간 득표율의 단순 나열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는 최초의 시도가 될것이다.

가. 지역감정과 투표행동

특정 지역민에 대한 편견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지역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와 "어느정도 그렇게 생각하느냐"의 두가지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의 연구 방법상으로는 첫번째의 "어떻게 생각되고 있느냐"는 분석은 어렵지 않으나 후자의 "어느정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것은 편견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느 척도의 개발을 필요로 한다. 편견의 강도를 측정하고자 하느 시도는 근간에 국내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개발이 완성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도의 정도를 대략적이나마 시사할 수 있는 응답율로서 이를 대신하였다.

1. 각 지역민에 대한 편견

다음은 각 지역민에 대한 편견들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편견들은 요인분석한 결과 얻어진 주요 특성들로서 이들은 투표행동과도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상은 각 특성별로 지역민을 평가한 것이다.

부적 특성들의 대부분은 전라지역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다. 즉 이기적인 사람, 믿을수 없는 사람, 월세 하숙을 주기 싫은 사람, 편견이 강한 사람 등등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전라지역 사람을 꼽고 있다.

표 1. 특성별 지역민 평가

단위(%)

	서울, 경기	충 청	경 상	전 라
이기적이다	37.7	4.6	18.3	41.6
믿을 수 없다	14.9	3.2	12.3	46.2
월세, 하숙주기 싫다	6.4	4.5	10.9	38.0
편견이 강하다	14.6	4.7	25.2	40.0
단결력이 강하다	6.1	4.6	26.4	63.6
잘난체 한다	47.3	3.2	19.0	22.3

위표는 전라지역 사람들이 가장 강한 편견에 휩싸여 있고 다음은 경상, 서울지역 사람들이 강한 편견에 싸여 있음을 시사한다.

2. 영호남간의 지역감정의 차이

다음은 영호남간의 지역감정이 어떻게 형성되여 있는지를 현실전 지역감정과 상징적 지역감정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표 2. 영호남간의 지역감정

• 현실적 지역감정 (단위 : 응답율 %)

	경 상	전 라	의의도
투표한 대통령후보 낙선은 나의 직접적 손해	8.2	29.2	**
공직지역별 할당해야	49.4	78.7	**
경상도 사람 금력 독점	27.9	79.8	**
경상도 승진등 혜택집중	19.8	81.4	**
상대지역민 이웃집으로 이사싫다	17.4	18.6	**

• 상징적 지역감정

상대지역민 이기적이다	37.8	31.9	**
상대지역민 믿을 수 없다	49.4	26.6	**
상대지역민 편견이 강하다	47.7	52.1	**

(** : $p<0.01$)

위의 표는 영호남간의 지역감정을 상징적 지역감정과 현실적 지역감정으로 나누어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백분율을 나타낸 것이다.

상징적 지역감정의 영호남의 차이보다는 현실적 지역감정의 경우 영, 호남간의 응답율에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호남인들은 선거와 본인의 이해관계에 높은 관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영남인들에 대한 이해관계의 편파를 깊이 되새기고 있음을 알수 있다.

위표는 기본적 가정으로서 영남인의 지역감정은 상징적 편견을 주로해서 형성되어 있고 호남인의 지역감정은 현실적 편견을 주로해서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3. 현실적 지역감정과 투표행동

다음은 현실적 지역감정과 투표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3. 현실적 지역감정과 투표행동

(단위 : 상관계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특정인 당선과 자신의 손해	0.241**	0.07	−0.27**
공직을 지역별로 할당	0.299**	0.08	−0.26**
타지역민 상급자 진출위협 지각	0.05	0.03	0.009
경상도 승진등 혜택집중 지각	0.29**	0.22**	−0.425**
경상도 금력 독점 지각	0.265**	0.14**	−0.35**
타지역민 이웃집으로 이사 싫어함	−0.145**	0.03	−0.184**

(** : $p<0.01$)

Kinder와 Sears (1981)의 realistic group conflict 변인과 Symbolic Racism 의 투표행동과의 상관연구에서는 Symbolic Racism 만이 투표행동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본인이나 본인 지역의 이해관계를 지칭하는 현실적 지역감정과 투표행동은 상당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영삼 후보에 대한 투표성향과 현실적 지역감정과는 대체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경상지역민들도 이해득실이 있을 경우 여당후보 선호와 관련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현실적 지역감정의 경우 김대중 후보의 투표행동과 가장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호남지역 사람들이 대부분이 높은 현실적 지역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4. 상징적 지역감정과 투표행동

다음은 각 후보에 대한 투표행동과 상징적 지역감정간의 상관관계를 기술한 표이다. 각지역 사람들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상징적 지역감정 문항의 수를 그 지역에 대한 상징적 지역감정의 지표로 삼았다.

표 4. 각 후보에 대한 투표행동과 상징적 지역감정간의 상관표

(단위 : 상관계수)

지역감정 / 후 보	서울, 경기	충 청	경 상	전 라
노태우	−0.20**	−0.06**	−0.33**	0.44**
김영삼	−0.03	−0.04	−0.27**	0.30**
김대중	0.17**	0.13**	0.53**	−0.56**

(** : $p<0.01$ 수준)

노태우, 김영삼 후보의 경우 경상지역에 대한 지역감정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전라지역에 대한 지역감정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반대로 김대중 후보의 경우 경상지역에 대한 지역감정과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4는 이번 선거에서의 투표행동과 지역감정과의 관계를 가장 잘 시사해 주고 있다. 특히 김대중 후보의 경우 출신지인 전라지역에 대한 지역감정 외에는 모든 지역에 대한 지역감정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반대로 노태우 후보는 전라지역에 대한 지역감정 외에는 모든 지역에 대한 지역감정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노태우 후보는 전라지역에 대한 상징적 지역감정이 득표원인의 19%($R^2=0.19$)나 되며 김대중 후보는 경상지역에 대한 상징적 지역감정이 득표원인의 28%($R^2=0.28$)를 점하고 있다.

어떠한 편견이 정치적인 면에 영향을 미친다면 상징적 감정들은 보도매체나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에 의해서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 감정들 보다는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미국측의 학자들은 보고있다.

5. 선거전후의 지역감정 변화

다음은 선거전과 선거후의 지역감정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표 5. 전라도민의 지역감정 변화

	선거전	선거후(단위 : 평균치)
서울지역민에 대한 편견	1.492	0.713
충청지역민에 대한 편견	0.203	0.197
경상지역민에 대한 편견	2.092	2.069
전라지역민에 대한 편견	0.942	0.367

표 6. 경상도민의 지역감정 변화

	선거전	선거후(단위 : 평균치)
서울지역민에 대한 편견	1.207	0.366
충청지역민에 대한 편견	0.213	0.076
경상지역민에 대한 편견	0.894	0.279
전라지역민에 대한 편견	2.907	2.366

위의 표를 통해서 본 전라도민과 경상도민의 지역감정의 정도 변화는 다음과 같다. 선거를 통해서 지역감정의 변화가 나타난 것은 서울 지역민과 충청지역민에 대한 지역감정이 낮아졌으며 일상적으로 예견했던 전라, 경상 지역민들의 지역감정이 더욱 심해졌을것 이라는 가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이번 선거에서 서울, 경기, 충청 지역민에 대한 편견들을 이슈로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영호남 지역감정이 지나치게 부각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을 것이고 경상-전라도민간의 지역감정은 선거를 통해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본 연구의 조사시점과 관련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선거전 조사의 시점이 11월 26일로서 선거 불과 20일 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사전 선거 열풍으로 지역감정이 이미 높아져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선거가 지역감정을 부채질 한다는 가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4개월 이전의 선거전 조사가 있었야 했다.

나) 각후보별 선호 이유

1. 노태우 후보 선호 결정변인

다음은 노태우 후보 선호를 결정하는데 관련된 요인들을 다변인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이는 노태우 후보를 선호한 이유들을 나타주고 있다.

노태우 후보를 선호하는 가장 큰 원인은 노후보의 이미지 때문이다.

즉 노후보에 대해 정직하고 친근감 있게 지각한 것이 노후보를 선호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노후보를 선호하는 이유의 41%(R^2=0.41)를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큰 원인은 노후보에 대한 기대감인데 노후보가 당선될 경우 정치, 경제, 사회가 발전 혹은 안정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두번째 노태우 후보를 선호하는 원인이다. 이 기대감은 노후보를 선호하는 이유의 6%를 점하고 있다.

다음은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김영삼, 김대중 후보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노후보를 기피하였는데 이는 약 2%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인이 사는 지역의 이익에

표 7. 노태우 후보 선호 관련변인

단위(%)

	BETA	누적(R^2)	의의도
노태우 이미지	0.34	0.41	**
노후보에 대한 기대감	0.33	0.47	**
김영삼에 대한 기대감	−0.10	0.477	**
김대중에 대한 기대감	−0.08	0.484	**
유권자 지역에 이익	−0.05	0.486	**
서울사람에 대한 지역감정	−0.04	0.488	*
경상도사람에 금력 집중지각	0.04	0.491	*

(**: $p<0.01$, *: $p<0.05$)

대한 것과는 부적상관이 있었으며 또한 서울 사람에 대한 지역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노태우 후보를 기피하고 있다.

이는 노태우 후보가 경상도 지역의 대표라는 이미지 보다는, 중앙과 지방을 대치 개념으로 보았을 때의 중앙대표라는 이미지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또한 '경상도 사람들은 금력을 독점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은 노후보를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경상도 지역인들이 대부분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노후보를 선호하는데 관련된 변인들을 살펴보면 이미지나 기대감에 관한 변인이 노후보 선호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감정과 관련된 것은 불과 1%에 불과하다. 보다 세부적으로 지역감정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노태우 후보 선호와 지역감정

	BETA	의의도(p=)
서울 사람에 대한 지역감정	−0.04	0.02
충청 사람에 대한 지역감정	0.01	0.67
경상 사람에 대한 지역감정	0.02	0.44
전라 사람에 대한 지역감정	−0.03	0.24

서울 사람에 대한 지역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노후보를 기피하는 것 이외에는 충청, 경상, 전라지역 사람에 대한 지역감정은 노태우 후보 선호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상도 사람에 대한 지역감정이 노태우 후보 선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 특이한데 이는 지역감정 노출로 엉망이 되었던 1987년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는 영향을 받지 않고 김영삼 김대중 양 후보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 노후보에 대한 기대감 중에서 선호 경향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은 다음과 같다.

	상관계수
사회안정	0.45
국민의 뜻 추구	0.41
경제성장	0.39
균형발전	0.37
정치발전	0.37

의 순이다.

• 노후보에 대한 이미지 중에는 성향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이미지는

친근감	(r=0.44)
지도력	(r=0.42)
국민과 동화	(r=0.38)
정직성	(r=0.20)

의 순을 보이고 있다.

1) 경상도 지역민의 노후보 선호 결정변인

표 9. 경상도 지역민의 노후보 선호 결정변인

	BETA	R^2	의의도
노태우 이미지	0.37	0.402	**
김영삼 기대감	−0.21	0.452	**
노태우 기대감	0.19	0.470	**
김대중 기대감	−0.11	0.480	**

(**: $p<0.01$)

경상도 지역민의 선호 경향을 따로 떼어 분석해 보면 노태우 후보에 대한 이미지가 선호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나 두번째 큰 변인은 김영삼 후보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의 "노태우 후보에 대한 기대감"과 순위를 달리하고 있다.

2. 김영삼 후보 선호 결정 변인

다음은 김영삼 후보 선호를 결정하는데 관련하는데 관련된 요인들을 다변인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표 10. 김영삼 후보 선호 관련 변인

	BETA	R^2	의의도
김영삼 이미지	0.33	0.39	**
김영삼에 대한 기대감	0.30	0.453	**
김대중에 대한 기대감	−0.10	0.454	**
노태우 이미지	−0.13	0.485	**
김대중 이미지	−0.10	0.49	**
전라도사람에 대한 지역감정	0.07	0.494	**
노태우에 대한 기대감	−0.08	0.497	**

(** : $p<0.01$)

이것은 김영삼 후보를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고 있다.

김영삼 후보를 선호하는 가장 큰 원인은 김영삼 후보의 이미지 때문이다.

김영삼 후보를 친근감있고 정직하게 지각 하는 것이 김영삼 후보를 선호하는 것과 가장 깊은 관련이 있으며 39%의 변량을 설명하고 있다. 두번째로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김영삼 후보에 대한 기대감으로 약 6%의 변량을 설명하고 있다. 김영삼 후보에 대한 기대감은 김영삼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정치와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안정시킬 것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김영삼 후보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부적 상관이 있는 것들로서 김대중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사람, 노태우, 김대중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는 사람들은 김영삼 후보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약 4%의 변량을 설명하고 있다.

전라도 사람에 대해 지역감정이 있는 사람은 김영삼 후보를 선호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김영삼 후보 선호 분석에 있어서 지역의 이익과 관계되는 현실적 편견이 김영삼 후보의 선호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음이 특이하다. (Beta= −0.01, $p=0.50$)이는 지역 이익을 위해서는 같은 동향인 노태우 후보가 유리 했을 것으로 판단 되었기 때문에 해석된다.

· 김영삼 후보에 대한 기대감 중에서 선호경향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은

정치발전 ($r=0.54$)
국민의 뜻 추구 ($r=0.51$)
사회안정 ($r=0.49$)
인권보장 ($r=0.44$)
빈부격차 해소 ($r=0.44$)의 순이다.

· 김영삼 후보의 이미지 중에서 선호경향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은

	상관계수
친근감	0.51
지도력	0.51
국민과 동화	0.48
정직성	0.17의 순이다.

1) 영남인의 김영삼 선호 결정변인

표 11. 영남인의 김영삼 후보 선호결정 관련변인

	BETA	R^2	의의도
김영삼에 대한 기대감	0.341	0.308	**
노태우 이미지	−0.341	0.408	**
김영삼 이미지	0.17	0.428	**
김대중 이미지	−0.11	0.437	**
영남인에 대한 지역감정	−0.08	0.445	**

(** : $p<0.01$)

경상도 지역민의 김영삼 후보선호 경향을 따로 분석하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인은 김영삼에 대한 기대감으로 31%를 설명하고 있으며 다음은 노태우 후보에 대한 이미지가 약 10%, 그리고 김영삼 이미지, 김대중 이미지의 순을 보이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보이는 지 않는 '영남인에 대한 지역감정'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기지역 사람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혹은 경상도 사람으로서의 긍지감이 강한 사람일수록)김영삼 후보를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3. 김대중 후보 선호 결정 변인

다음은 김대중 후보 선호 결정하는데 관련된 요인들을 다변인 회귀 분석한 결과이다. 이는 김대중 후보를 선호하는 원인을 나타내 준다.

앞서 노태우, 김영삼 후보의 각 후보에 대한 이미지가 각 후보를 선호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으나 김대중 후보의 정치, 경제, 사회발전과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따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김대중 후보를 선호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김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한 변인이 김대중 후보를 선호하는 이유의 57%($R^2=0.57$)가 되고 있다.

표 12. 김대중 후보 선호 관련변인

	BETA	R^2	의의도
김대중에 대한 기대감	0.41	0.57	**
김대중 이미지	0.29	0.62	**
김영삼에 대한 기대감	−0.08	0.64	**
전라도사람에 대한 지역감정	−0.09	0.65	**
김영삼 이미지	−0.09	0.655	**
노태우에 대한 기대감	−0.07	0.659	**
경상도 금력혜택 집중지각	−0.05	0.663	**

(** : $p<0.01$)

두번째 김대중 후보를 선호하는 원인이 된 것은 김대중 후보의 이미지로서 약5%를 점하고 있다.

김영삼 후보에 기대감을 갖는 사람, 전라도 사람에 대한 지역감정이 있는 사람, 김영삼 후보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는 사람, 노태우 후보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사람, 경상도에 금력이나 혜택이 집중 되었다고 지각하는 사람의 순으로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김대중 후보를 기피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 김영삼 후에 대한 이미지 기대감으로서 1987년의 김대중 후보의 정치적 라이벌이 된 것이 노태우 후보가 아니라 김영삼 후보 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 김대중 후보에 대한 기대감 중에서 선호경향과 가장 상관이 높은 것은

  사회안정 (r=0.71)
  국민의 뜻 추구 (=0.69)
  균형발전 (r=0.66)
  정치발전 (r=0.65)의 순이다.

- 김대중 후보에 대한 이미지 중에서 선호경향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은

	상관계수
친근감	0.64
지도력	0.62
국민과 동화	0.50
정직성	0.30

의 순을 보이고 있다.

1) 호남인의 김대중 선호 결정변인

표 13. 호남인들의 김대중 선호 관련 변인

	BETA	R^2	의의도
김대중에 대한 기대감	0.32	0.318	**
노태우 이미지	−0.29	0.410	**
김영삼 이미지	−0.20	0.460	**
김대중 이미지	0.14	0.481	*
전라도사람에 대한 지역감정	−0.19	0.490	*

(** : $p<0.01$, * : $p<0.05$)

전라도 지역민 만을 따로 떼어 분석하면 김대중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변인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와 같으나 노태우 후보의 이미지, 김영삼 이미지의 두 변인이 차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가 차이가 나고 있다.

이상의 세후보에 대한 각각의 선호 결정 변인들을 종합하면 노태우, 김영삼 후보의 경우에는 각각의 이미지가 그리고 김대중 후보의 경우에는 기대감이 각 후보를 선호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세후보의 경쟁 관계에 있어서 노태우 후보의 경우는 김영삼, 김대중 후보 똑같이 경쟁 관계에 있었으나 (R^2는 각 7%씩) 김영삼 후보의 경우는 김대중 후보가 득표에 가장 큰 장애가 되었고 김대중 후보의 경우는 김영삼 후보가 득표에 가장 큰 장애가 되었다. 이는 개헌 이래 가장 큰 정치적인 이슈였던 군정 종식이 후보자 선호 결정의 중요 요소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야권 통합이 되지 못해 표가 분산되었다는 경험적 증거가 된다. 즉 야당 후보들이 여당 후보와 경쟁한 것이 아니라 야당후보끼리 경쟁했다는 것이다.

결론 및 논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역간 감정을 살펴본 결과 전라지역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가장 강했는데 이들은 현실적 지역감정이나 상징적 지역감정 모두에 걸쳐 가장 편견에 휩싸여 있었다.

영남인들의 호남사람에 대한 지역감정은 '믿을 수 없다' '편견이 강하다'와 같은 어려서부터 학습된 상징적 지역감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호남인의 경우에는 영남사람들에 대해, 상징적 지역감정 외에 영남인들에의 금력이나 혜택집중 지각과 같은 현실적 지역감정을 주로해서 지역감정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역감정을 분류없이 사용해 왔으나 영남과 호남의 지역감정은 다른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해야 하고 향후 지역감정에 대한 치유책도 영·호남간에 각기 다른 치

유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지역감정은 1987년의 대통령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현실적 지역감정과 상징적 지역감정 모두 투표행동과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미국을 배경으로 한 Kinder와 Sears의 1981년의 연구에서는 상징적 편견만이 투표행동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실적 지역감정도 투표행동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특히 호남지역 사람들이 높은 현실적 지역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대중 후보와의 투표행동과는 상당히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다.

상징적 지역감정도 후보자 출신지에 따라 명확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노태우 후보의경우 전라도 사람에 대한 지역감정으로 19%, 김대중 후보의 경우는 경상도 사람에 대한 지역감정이 약 28%의 득표원인이 되고 있다.

어떠한 편견이 정치적인 면에 영향을 미친다면, 상징적 지역감정들은 보도 매체나 비공식적 의사 소통에 의해서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 지역감정들 보다는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미국측 학자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상징적 지역감정과 현실적 지역감정이 거의 비슷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이번 선거가 지역감정을 상당히 부채질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전과 후의 지역간 감정을 비교해 본 결과 서울, 충청 지역에 대한 지역감정이 오히려 낮아진 결과를 보이고 영호남의 지역감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 시점이 11월 26일로서 불과 20일 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사전 선거 열풍으로 영호남간의 지역감정이 이미 높아져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선거가 지역감정을 부채질한다는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4개월 이전에 선거전 조사가 행해져야 했다.

한국인들의 투표성향 분석에 있어서, 특히 번 87년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중적 이슈(issue publics)가 선거의 향방을 가르지 못했다.

87년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는 군정종식이었다. 다음으로는 '정치적 민주화'가 가장 큰 이슈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노태우, 김영삼 후보의 득표원인중 가장 큰 것은 자신들의 이미지였고 김대중 후보는 자신에 대한 기대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중적 이슈가 크게 부각하지 못한 것은 직선제 개헌에 연이어 개헌후의 국민의 주관심 대상이 야권 후보 단일화로 집약되었고 야권후보 단일화 추구는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러한 정치 환경이 대중적 이슈를 희석시키는 작용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같은 추론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는 야권후보들의 국민들에 대한 약속 불이행으로 노태우 후보의 정식성과 친밀감을 돋보이게 하였고 이것이 노후보 선호 이유중 41%(R^2=0.41)을 점하고 있으며 야권후보끼리의 경쟁은 종래의 개헌, 군정종식과 같은 대중적 이슈에서 '사회의 안정추구'라는 또다른 대중적 이슈를 만들어 냈다. 노후보의 선호 이유중 두번째로 큰 비중을 갖었던 '노후보에 대한 기대감'중에서 (R^2=0.06) 사회안정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R^2=0.45).

1971년의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역간 감정이 심화되는 것은 여권후보에 이롭게 작용

을 하였는데 각 후보에 대한 선호 이유를 보면 (표 7,10, 12참조)노태우 후보는 오히려 서울사람과 관련된 편견에 영향을 받았고 영남인에 대한 지역감정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반면 김대중, 김영삼 후보는 각각 영호남에 대한 지역감정의 영향을 받고 있다.

투표관련 모든 변인을 한꺼번에 다변인 회귀분석을 하면 선호 이유중 지역감정들의 비중이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지역감정들이 특정 후보들의 이미지와 기대감과 높은 상관관계를 (P=0.01 수준)갖기 때문이다 (부록 1,2,3참조).

세 후보의 경쟁관계에 있어서 노태우 후보의 경우는 김대중, 김영삼 후보가 똑같이 경쟁관계에 있었으나 (R^2는 각 7%씩), 김영삼 후보는 김대중 후보가 득표에 가장 큰 장애가 되었고, 김대중 후보의 경우는 김영삼 후보가 득표에 가장 큰 장애가 되었다. 이는 야권후보가 통합되지 못해 표가 분산되었다는 경험적 증거가 된다.

이상 논의된 한국인의 87'대통령 선거에서의 투표행동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Vb = Ic + Ec + Ra + C$$

(Vb : 투표행동, Ic : 후보자의 이미지, Ec : 후보자의 기대감, Ra : 지역감정, C : 상수)

참고문헌

김진국, 영호남 대학생의 차이지각연구, 사회심리. 1987.

Ashimore, R.D.(1970) Prejudice : Causes and Cures. In B.E. Collins(Ed.), *Social Psychology. Reading*, Mass.. Addison-Wesley.

Blalock, H.M., Jr.(1967) *Toward a theory of minority-group relations.* New York : Wiley.

Kinder D.R. & Sears D.O.,(1981) Prejudice and politics. *Jou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0. 414-431.

Middleton, R. Regional differences in Prejudice.(1976) *American Socialogical Review*, 41, 94-117.

Sears, D.O., Lau, R.R., Tyler, T.R. & Allen, H.M.(1980) Self-Interest vs. Symbolic Politics in Policy Attitndes and Presidential Voting.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70-684.

Sherief, M., Harvey, O.J., White, B.J., Hood, W.R., & Sherief, C.W(1961). Inergroup conflict and cooperation : The robber's cave experiment. Norman : University of Oklahoma Book Exchange.

부록 1. 노태우 후보 선호이유와 지역감정과의 상관표

	선 호	서 울	충 청	경 상	전 라	이미지	기대감
선 호	1.0000 (0) p=*****	−0.0872 (1423) p=0.000	0.0166 (1428) p=0.266	−0.1162 (1428) p=0.000	0.1705 (1428) p=0.000	0.6425 (1428) p=0.000	0.6374 (1428) p=0.000
서 울	−0.0872 (1423) p=0.000	1.0000 (0) p=*****	0.0647 (1428) p=0.007	−0.0536 (1428) p=0.021	0.1411 (1428) p=0.000	0.0623 (1428) p=0.009	0.0280 (1428) p=0.145
충 청	0.0166 (1423) p=0.266	0.0647 (1428) p=0.007	1.0000 (0) p=*****	0.0684 (1428) p=0.005	−0.0819 (1428) p=0.001	0.0203 (1428) p=0.222	0.0052 (1428) p=0.422
경 상	−0.1162 (1423) p=0.000	−0.0536 (1428) p=0.021	0.0684 (0) p=0.005	1.0000 (0) p=*****	−0.2451 (1428) p=0.000	−0.1549 (1428) p=0.000	−0.1619 (1428) p=0.000
전 라	0.1705 (1423) p=0.000	−0.1411 (1428) p=0.000	0.0819 (1428) p=0.001	−0.2451 (1428) p=0.000	1.0000 (0) p=*****	0.2483 (1428) p=0.000	0.2567 (1428) p=0.000
이미지	0.6425 (1423) p=0.000	−0.0623 (1428) p=0.009	0.0203 (1428) p=0.222	−0.1549 (1428) p=0.000	0.2483 (1428) p=0.000	1.0000 (0) p=*****	0.7408 (1428) p=0.000
기대감	0.6374 (1423) p=0.000	−0.0280 (1428) p=0.145	0.0052 (1428) p=0.422	−0.1619 (1428) p=0.000	0.2567 (1428) p=0.000	0.7408 (1428) p=0.000	1.0000 (0) p=*****

선호 : 선호도, 서울 : 서울사람에 대한 지역감정, 충청 : 충청사람에 대한 지역감정, 경상 : 경상사람에 대한 지역감정, 전라 : 호남사람에 대한 지역감정, 이미지 : 노태우 후보의 이미지, 기대감 : 노태우 후보의 기대감

부록2. 김영삼후보 선호이유와 지역감정과 상관표

	선 호	서 울	충 청	경 상	전 라	이미지	기대감
선 호	1.0000 (0) p=*****	0.0078 (1423) p=0.384	−0.0048 (1428) p=0.428	−0.1579 (1428) p=0.000	0.2456 (1428) p=0.000	0.6252 (1428) p=0.000	0.6054 (1428) p=0.000
서 울	0.0078 (1423) p=0.384	1.000 (0) p=*****	0.0647 (1428) p=0.007	−0.0536 (1428) p=0.021	−0.1411 (1428) p=0.000	0.0199 (1428) p=0.226	0.0144 (1428) p=0.293
충 청	−0.0048 (1423) p=0.428	0.0647 (1428) p=0.007	1.0000 (0) p=*****	0.0684 (1428) p=0.005	−0.0819 (1428) p=0.001	0.0100 (1428) p=0.353	−0.0393 (1428) p=0.069
경 상	−0.1579 (1423) p=0.000	−0.0536 (1428) p=0.021	0.0684 (1428) p=0.005	1.0000 (0) p=*****	−0.2451 (1428) p=0.000	−0.1405 (1428) p=0.000	−0.1099 (1428) p=0.000
전 라	0.2456 (1423) p=0.000	−0.1411 (1428) p=0.000	−0.0819 (1428) p=0.001	−0.2451 (1428) p=0.000	1.0000 (0) p=*****	0.2274 (1428) p=0.000	0.2343 (1428) p=0.000
이미지	0.6252 (1423) p=0.000	0.0199 (1428) p=0.226	0.0100 (1428) p=0.353	−0.1405 (1428) p=0.000	0.2274 (1428) p=0.000	1.0000 (0) p=*****	0.6729 (1428) p=0.000
기대감	0.6054 (1423) p=0.000	0.0144 (1428) p=0.293	−0.0393 (1428) p=0.069	−0.1099 (1428) p=0.000	0.2343 (1428) p=0.000	0.6729 (1428) p=0.000	1.0000 (0) p=*****

선호 : 선호도, 서울 : 서울사람에 대한 지역감정, 충청 : 충청사람에 대한 지역감정 경상 : 경상사람에 대한 지역감정, 전라 : 호남사람에 대한 지역감정, 이미지 : 김영삼 후보의 이미지, 기대감 : 김영삼 후보의 기대감

부록3. 김대중후보 선호이유와 지역감정과 상관표

	선 호	서 울	충 청	경 상	전 라	이미지	기대감
선 호	1.0000 (0) p=*****	0.1242 (1423) p=0.000	−0.0084 (1428) p=0.375	0.3060 (1428) p=0.000	−0.4231 (1428) p=0.000	0.7565 (1428) p=0.000	0.7334 (1428) p=0.000
서 울	0.1242 (1423) p=0.000	1.000 (0) p=*****	0.0647 (1428) p=0.007	−0.0536 (1428) p=0.021	−0.1411 (1428) p=0.000	0.01260 1428) p=0.000	0.1352 (1428) p=0.000
충 청	−0.0084 (1423) p=0.375	0.0647 (1428) p=0.007	1.0000 (0) p=*****	0.0684 (1428) p=0.005	−0.0819 (1428) p=0.001	0.0158 (1428) p=0.275	0.0198 (1428) p=0.227
경 상	0.3060 (1423) p=0.000	−0.0536 (1428) p=0.021	0.0684 (1428) p=0.005	1.0000 (0) p=*****	−0.2451 (1428) p=0.000	−0.3381 (1428) p=0.000	−0.3129 (1428) p=0.000
전 라	0.4231 (1423) p=0.000	−0.1411 (1428) p=0.000	−0.0819 (1428) p=0.001	−0.2451 (1428) p=0.000	1.0000 (0) p=*****	0.3846 (1428) p=0.000	0.3858 (1428) p=0.000
이미지	0.7565 (1423) p=0.000	0.1260 (1428) p=0.000	0.0158 (1428) p=0.275	0.3381 (1428) p=0.000	0.3846 (1428) p=0.000	1.0000 (0) p=*****	0.7821 (1428) p=0.000
기대감	0.7334 (1423) p=0.000	0.1352 (1428) p=0.000	0.0198 (1428) p=0.227	−0.3129 (1428) p=0.000	0.3858 (1428) p=0.000	0.7821 (1428) p=0.000	1.0000 (0) p=*****

선호 : 선호도, 서울 : 서울사람에 대한 지역감정, 충청 : 충청사람에 대한 지역감정, 경상 : 경상사람에 대한 지역감정, 전라 : 호남사람에 대한 지역감정, 이미지 : 김대중 후보의 이미지, 기대감 : 김대중 후보의 기대감

1. 선생님께서는 현재 정치문제에 대해서 주로 듣는 편입니까 이야기 하는 편입니까?
① 이야기 하는 편 ② 반반 ③ 듣는 편

※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하여 가끔 들을 수 있는 의견들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의견들에 대하여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아주 그렇다	그렇다	모름 중간	아니다	전혀 아니다
2. 우리나라정치는 너무 잘못된 것이 많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1	2	3	4	5
3. 정치가란 알고보면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다.	1	2	3	4	5
4. 우리같은 사람이 정치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1	2	3	4	5
5. 내가 투표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으면 결국은 나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1	2	3	4	5
6. 과거의 지역차별 때문에 공직의 배분을 지역별로 할당해 주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1	2	3	4	5
7. 향후에는 선생님 가족들이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 출신지역 사람과 더욱 많은 접촉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지역 사람들이 선생님이나 가족의 상관이나 감독자로 오게될 확률이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8.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말 마음에 드는 후보는 한 명도 없었다.	1	2	3	4	5

9.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 하였는지요?
① 노태우 ② 김영삼 ③ 김대중 ④ 김종필 ⑤ 기타

10. 그 후보를 찍으신 이유는 다음중 어느 것입니까?(중복응답)
① 고향발전을 위해
② 안정을 위해
③ 그냥 좋아서(외모 등)
④ 공약
⑤ 민주주의 확립
⑥ 우리 계층을 가장 잘 이해하기 때문
⑦ 군정종식
⑧ 풍부한 정치경력
⑨ 강한 지도력
⑩ 기타 _____

※ 우리는 모두 '○○도 사람은 △△하다'는 생각을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드는 도 사람은 어느 도 사람인지 아래의 보기와 같이 대답해 주십시오. 한 질문에 들어상 ○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 기 말이 느린 사람은?	서울·경기 1	충청 ②	경상 3	전라 ④	없다 5
13. 사교적인 사람은?	1	2	3	4	5
14. 인정이 많은 사람은?	1	2	3	4	5
15. 이기적인 사람은?	1	2	3	4	5
16. 믿을수 없는 사람은?	1	2	3	4	5
17. 무뚝뚝한 사람은?	1	2	3	4	5
18. 월세나 하숙을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은?	1	2	3	4	5
19. 편견이 강한 사람은?	1	2	3	4	5
20. 단결력이 강한 사람은?	1	2	3	4	5
21. 과격한 사람은?	1	2	3	4	5
22. 잘난체 하는 사람은?	1	2	3	4	5
23. 생활력이 강한 사람은?	1	2	3	4	5

※ 다음과 같은 의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1	아니다 2	모 름 3
24. 전라도 사람을 중용하지 말라는 옛말은 조금도 틀린말은 아니다.	1	2	3
25. 경상도 사람은 지나치게 많은 금력을 독점하고 있다.	1	2	3
26. 경상도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혜택을 받아 왔다.	1	2	3
27. 전라도 사람은 불만이 많다.			
28. 전라도 지역이 발달하지 않은 것은 전라도사람들이 日잘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 없기 때문이다.			
29. 자기 지역 출신자에게 투표하는 것은 당연하다.	1	2	3
30. 전라도 사람이 이웃집에 새로 이사오는 것은 싫다.	1	2	3
31. 경상도 사람이 이웃집에 새로 이사오는 것은 싫다.	1	2	3
32. 충청도 사람이 이웃집에 새로 이사오는 것은 싫다.	1	2	3

※ 다음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었을때 어떤 대통령이 될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보기와 같은 요령으로 응답해 주십시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없다	모두
보 기						
군출신을 많이 쓸 사람은?	①	2	3	④	5	6
재야 인사를 많이 쓸 사람은?	1	②	③	4	5	6
33. 정치발전을 이룩할 사람은?	1	2	3	4	5	6
34. 경제를 성장시킬 사람은?	1	2	3	4	5	6
35. 사회를 안정시킬 사람은?	1	2	3	4	5	6
36. 인권을 보장할 사람은?	1	2	3	4	5	6
37. 정치적 보복을 할 사람은?	1	2	3	4	5	6
38. 빈부 격차를 해소할 사람은?	1	2	3	4	5	6
39. 국민의 뜻을 잘 받아줄 사람은?	1	2	3	4	5	6
40.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사람은?	1	2	3	4	5	6
41. 지역간 균형발전에 골고루 혜택을 줄 사람은?	1	2	3	4	5	6
42. 연고지에만 혜택을 줄 사람은?	1	2	3	4	5	6
43. ○○님이 사시는 동네(지역)에 가장 이득이 될 사람은?	1	2	3	4	5	6
44. 국민 경제를 위태롭게 할지도 모르는 사람은?	1	2	3	4	5	6
45. 반공 사상을 무너뜨릴 사람은?	1	2	3	4	5	6

※ 현재 다음 대통령 후보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다음 보기처럼 응답해 주십시요. 두사람 이상에 ○표를 해도 괜찮습니다.

보 기	
군 출신인 사람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없다
46.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없다
47. 지도력이 있는 사람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없다
48. 친근감이 깃든 사람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없다
49. 국민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없다
50. 민주화에 공이 큰 사람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없다
51. 안정을 해칠 사람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없다

韓國心理學會誌：産業 및 組織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990. Vol. 3, NO. 1. 98－121

Voting Behavior and Regional Prejudice in Korea

—1987 persidential election—

Hong-Kuk Choi

(Honam University)

The primary goal of the present research was to test the two major theoritical approaches to prejudice by regians.

As a result, Hanamian was most strongly prejudiced by overall people. Regional antagonism between Youngnam and Honam has a different structure. Youngnamian Regional antagonism against Honam was constructed with symbolic prejudice which was acquired through the socialization. Such as 'Unbelivalble' 'thinking only his distric' were belonged to Symbolic antagonosm. Honamian antagonism against Youngnam was constructed with realistic treat which was acquired through the perception of declined financial supprot and any other benefits compared with Youngnam.

Regional antagonism strongly affect in 1987 Presidential voting behavior. In American circunstance, only the Symbolic antagonism was correlated with voting behavior, however both of antagonisms were correlated with voting behavior in Korea.

In the last presodential election, issue publics, such as refuse of Army governing, was no more determinant in voting behavior.

Images and Expectations of each cnadidate were main determinants in voting behavior. 'Familiality'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candidate's Image and 'Stability of socrety' was the most important expectation to each candidate.

This article showed also emperical evidences that failure of unification of opposition Party has caused defeat of election.